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KOREAN CHEMICAL & TEXTILE & FOOD WORKERS' UNION KAKAO DISTRIC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7층 / 전화 (02) 6718-0717 / kakaounion@gmail.com

제목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문의	서승욱 지회장(010-2517-3248)
보도일시	2021년 06월 20일 15시 즉시

카카오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 철회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하라"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소식에 3일만에 과반 노조 결성
매각으로 인한 30만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위태해져..노조, "사회적 책임 이행하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지회장 : 서승욱, 이하 노동조합)는 2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반 노동조합을 결성을 선언하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지회는 카카오 계열사(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칭은 크루유니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 카카오에서 물적 분할 이후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주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누적가입자 3,000만명에 월 활성 이용자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 플랫폼이며, 2021년 4,425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57.5%를 보유한 대주주다. TPG컨소시엄(TPG·한국투자파트너스·오릭스)의 지분율이 약 24%, 미국계 PEF 칼라일 지분율이 6.2%다. 최근 투자 유치를 통해 약 8조 50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은 바 있다..

언론보도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의 주주가치 증대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 고 밝혔으나 후속보도가 이어졌고, 지난 6월 17일 카카오모빌리티 내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올핸즈 미팅에서 경영진은 매각 진행 사실을 인정했다.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통상 사업의 정리수순으로 가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간접 고용된 30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야기될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간한 2021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T 대리운전 기사는 17만명이며,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에 소속된 기사는 1,000명에 이른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등에 따르면 카카오T 블루 기사는 3만 6천명인 상황이다.

매각 소식을 접한 카카오 모빌리티 구성원들은 일방적인 매각 추진을 반대하며 노동조합으로 집결하였고, 불과 2-3일 만에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하면서 카카오 계열사 최초의 과반노조가 되었다. 조합원 가입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구성원들은 이번 매각과 관련한 경영진의 소통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확한 매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매각 논의 과정과 이후 매각 추진 의사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매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약속했던 경영진들이 그와 가장 거리가 먼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매각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플랫폼이 될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 공동체 소속 구성원들은 "특히 모빌리티의 매각은 앞으로 카카오 경영 방식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잘 키운 서비스를 스피노프하고 독립적 법인으로 만들고 기업 공개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언제든 팔아버릴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일지도 모른다." 라며 앞으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민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플랫폼 노동자들, 카카오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 모두와 연대하여 매각을 반대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주 조합원 토론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끝)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 성명서]

사모펀드 매각 반대! 사회적 책임 이행! 카카오 모빌리티 노동자들이 만들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카카오T가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기까지 서비스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열정을 다한 크루들의 열정과 땀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로 질타를 받을 때도, 사업의 부침이 있을 때도 크루들은 함께 감내하며 택시부터 대리, 바이크, 주차, 내비등 이동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의 모빌리티 환경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눈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비판과 질타에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전 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카카오는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며, 플랫폼 노동자 수익 확대를 위해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블루 서비스 취소수수료 배분, 대리기사 변동수수료율 개선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매각입니까

아직 사회적 책임을 다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올해 안에 상장이 어려우니 사모펀드에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했던 경영진들은 상생과 책임 대신 회피와 매각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크루들의 피, 땀, 눈물에 대한 일말의 언급 없이 '매각'이라는 중대 절차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결국 경영진과 대형 투자사들만 이익을 누리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민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플랫폼 노동자들, 카카오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 경영권에 가려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노동조합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과 함께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분회는 카카오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과반수를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되었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은 조합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 공동체의 모든 크루들,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사모펀드 매각을 막아내고, 우리의 일터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